'복지급여 횡령' 뒤숭숭한 해남

군민들 "도대체 누굴 믿겠나" 배신감

공무원 "주민들 어떻게 보나" 자괴감

10억 원대의 사회복지 급여 횡령 사건으로 해남이 뒤숭숭하다.

해남군 공직사회는 동료 직원의 복지급여 10억 원 횡령 사건이 터지자 자괴감과 함께 공황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해남군청 압수수색과 공무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 확대까지 군청 주변에 퍼지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은 해남읍사무소 직원 장모(여·40)씨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지는 못할망정 거액의 복지급여를 빼돌린 데 분노하면서 공무원들의 부도덕성을 질타했다.

신하균(42) 공무원노조 해남군청 지부장은 "해남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당혹스러운데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라며 "모든 공무원들이 비리 공무원으로 매도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복지급여 담당 공무원 김모씨는 "지금까지 읍·면 복지 담당자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사명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번 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면서 "군민들이 앞으로 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서모(41)씨는 "배운 것도 없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공무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큰 배신감이 든다"면서 "그동안 받아왔던 각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처리된 것인지 의심이 들어 확인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민 정모(54)씨는 "앞으로 공무원들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동네 창피할 일이다. 엄중하게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흥분했다.

주민 김모(43)씨는 "해남군은 그동안 전(前) 군수의 인사비리와 공무원들의 공사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이번에는 공무원 횡령 비리 사건이 터져 지역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면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

전남대·부산대 등 4개大

서울서 공동 입학설명회

전남대와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등 지방거점 국립대학 4곳이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서울에서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남대는 11일 지방 4개 대학이 서울에서 오는 8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2010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서울 설명회에 이어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전주, 부산 등 지방 순회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서울지역은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박람회 시기와 연계해 실시키로 했다.

전남대 노안영 입학관리본부장은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비전과 우수성을 알리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신입생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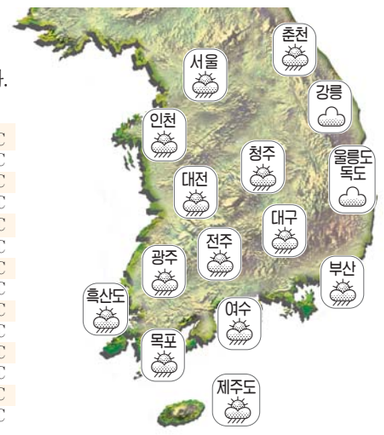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48분 / 해짐 18시 37분 — 달뜸 20시 01분 / 달짐 07시 00분

마른 땅 적시는 비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 한때 비	4/16℃
목 포	흐리고 한때 비	5/14℃
여 수	흐리고 한때 비	6/13℃
완 도	흐리고 한때 비	5/14℃
구 례	흐리고 한때 비	1/15℃
해 남	흐리고 한때 비	3/14℃
장 흥	흐리고 한때 비	2/14℃
고 흥	흐리고 한때 비	4/15℃
순 천	흐리고 한때 비	4/14℃
영 광	흐리고 한때 비	2/14℃
진 도	흐리고 한때 비	5/14℃
전 주	흐리고 한때 비	1/16℃
남 원	흐리고 한때 비	0/15℃
흑산도	흐리고 한때 비	7/13℃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	1.0~4.0m
먼바다	동~남	1.5~4.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	1.0~4.0m
먼바다	동~남	1.0~4.0m

	밀물	썰물
목포	02:51	08:03
	15:10	20:22
여수	09:50	03:35
	22:12	15:50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날 씨						
최저/최고	-3/14	-1/6	-2/12	3/14	5/17	8/14

'해남 횡령 사건' 수사 확대

경찰, 여성 공무원 구속·군청 압수수색 … 돈 흐름 추적

경찰이 사회복지 급여 10억여원을 빼돌린 해남군 여성 공무원을 구속하고 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횡령한 돈의 흐름과 규모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남경찰은 11일 해남군 7급 공무원 장모(여·4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5년여간 복지급여 10억여원을 자신의 남편과 아들·지인 등의 명의로 된 34개 통장 계좌를 통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에 사용한 차명계좌 34개와 친인척 통장 등을 압수수색해 횡령한 돈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장씨가 근무한 읍사무소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하드디스켓, 복지급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특히 장씨의 범행이 5년이나 지속됐다는 점으로 미뤄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장씨의 상급자와 군청 복지업무 담당자, 남편 등을 불러 정확한 돈의 흐름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일부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횡령 액수나 공모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광주·전남 적십자회비 모금액 불황에도 늘었다

극심한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의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2009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1월20일~2월28일) 중 모금액은 19억4천800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1억3천500만원(↑5%)이 증가했다.

이중 광주 모금액은 4억7천600만원으로 목표액의 52.9% 수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였다.

전남은 14억7천200만원으로 목표액의 84.1%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사는 모금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봄 재촉 단비

주말에는 꽃샘추위

12일 오후부터 13일 오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단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기습적인 꽃샘추위가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광주·전남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으며 13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다"고 11일 예보했다. 강수량은 이틀에 걸쳐 30~80㎜로 예상되며, 특히 여수와 목포 등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능 본다는 마음으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이 치러진 11일 오전 광주 전남여고에서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광주 54개교 1만8천여명, 전남 133개교 6만3천여명 등 전국에서 183만여명의 고교생이 참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원어민 영어 교사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으세요"

광주시교육청, 전국 최초 '콜센터'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12일부터 전국 최초로 원어민 화상 콜센터를 운영한다.

일선 학교에서 원어민과의 화상 수업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긴 했어도 원어민이 상시 대기하며 화상을 통해 수업을 돕거나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콜센터 운영은 국내 첫 시도다.

모두 3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교육청 교육정보원내 콜센터에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출신 등 영어 원어민 5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기하며 학교 수업을 돕거나 방과후 개인적인 영어 교육을 돕는다.

시교육청은 우선 원어민 교사가 없는 학교 10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방과후에는 농촌지역 초·중학교 7곳을 대상으로 수업과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환경과 카메라가 부착된 컴퓨터만 있으면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가 가능해 학생들은 물론 일선 교사들의 발음 교정 등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방과후에도 일정 시간 운영을 계속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영어 공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홈페이지(http : // native@gen.go.kr)를 통한 예약은 필수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초등 입학생 수 1만명대로 추락

年 3천여명씩 줄어

전남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대로 떨어졌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437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1만7천42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취학아동이 2만268명(전체 초등생 14만1424명)인 것을 감안하면 2천847명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 2007년(취학아동수인 2만3천348명)에 비해선 5천929명이 줄어들었다.

이 같이 2년 연속 취학아동이 평균 3천명씩 줄어들면서 입학생 인원도 올해 처음으로 1만명 대로 추락했다. 지난 87년 32만7천189명이던 전남도내 전체 초등학생 수도 13만 3천471명으로 떨어졌다.

전남지역의 학생 수 급감은 농촌학교의 폐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만 화순 능주북초를 비롯한 도내 16개교 15개 분교장(중학교 2교, 3분교 포함)이 통폐합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